

## 긍정과 위로의 우리말

조현용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 1. 우리말과 감정

국제화와 세계화가 중요한 화두이자 구호가 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언어의 문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영어 구사 능력이나 다른 외국어 능력이 점점 중요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위안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어가 평생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롭고 즐거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말은 원래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국제화의 바람을 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류나 한국의 경제력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어도 세계 속에서 중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중요성을 넘어서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한국 가수의 노래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어가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어가 국제적인 언어가 되고 있지만 우리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이고 한국인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문화는

한국어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이유는 한국어를 통해 우리의 모습과 뿌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커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형용사의 발달이나 음성 상징어의 발달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이나 맛, 온도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발달은 우리말이 변화와 감정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 줍니다. 의태어에 나타나는 음성 상징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우리말, 한국어입니다. 우리말로 서로의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심리적인 문제에서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긍정의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는 긍정과 위로의 감정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 2. 긍정의 우리말

힘든 세상일수록 긍정의 감정이 힘을 발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한없이 가라앉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나겠지만 언어는 그 이상의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우리말에서 긍정의 힘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담긴 우리말을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도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말

을 통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제게 긍정의 힘을 보여 준 몇 가지 어휘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1. 그만하기 다행, 액땜

우리는 누가 다쳤을 때도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다행이라니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더 큰일이 있습니다. 더 슬프고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기에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늘 긍정으로 작용합니다. ‘액땜했다’는 표현도 대표적인 긍정 표현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액땜했다고 생각합니다. 액땜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액을 막아준 작은 불편함이라 여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나 더 큰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액땜이 됩니다. 액땜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 2.2. 사람이 되다, 바람직하다, 좋다

우리말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 발견하고 지키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말도 좋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즉, 인간이 바랄 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중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종종 나쁜 욕망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즉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나라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꿈꾸는 나라입니다. 빈부 격차가 크고, 혐오가 가득한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이런 나라를 좋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 보면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나라는 우리가 감정 속에서 진실로 좋아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괴롭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 2.3.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우리말의 긍정적인 측면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싸울 때도 꼭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져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쓸 때는 꼼수를 부리는 느낌이 납니다. 꼼수는 지는 것처럼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을 많은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한 사람이 악착같이 이겨야 할까요? 가족이나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서 이긴 사람은 좋은 칭찬을 못 받습니다. 너무 심한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표현도 합니다. 맞은 사람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기도 하지만 맞았다고 해도 마음이 꼭 불편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속담 여러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의 희망을 담은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도 금방 화해해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을 담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백지장도 맞들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쪽을 바라보면 힘들어도 힘이 납니다. 즉 힘들 일이 계속 있겠지만 우리말 표현을 통해서 힘을 다시 얻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 3. 위로의 우리말

힘들 때 누군가가 건넨 한 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말 때문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외롭다는 말은 내가 뚝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보여 주는 어휘입니다.

#### 3.1.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라는 표현이 위로의 표현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밥 세끼를 굽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생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밥은 음식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이때 밥은 반찬과 함께 먹는 음식의 개념이 아니라 한 끼 식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밥만큼 평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수십 끼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고 해도 꼭 모두에게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밥을 굽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밥을 굽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밥알이 몸속에서 곤두서는 느낌

이 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지요. 그럴 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다면 밥 먹을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밥은 먹었니?’라는 말에 왈칵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과 따뜻한 한 끼를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감정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감정입니다. 위로하는 사람도 위로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 끼식사가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 3.2.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관계하지 않다’는 말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있고, ‘공연히 하지 않다’가 줄어들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두 의견이 경우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괜히’는 ‘공연히’가 줄어든 것이므로 ‘공연히 하지 않다’로 보는 것도 가능할 듯합니다.

우리말에서 괜찮다는 말은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됩니다. 좋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문제가 없으니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 좋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저는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짐을 느낍니다. 특히 괜찮다는 말을 질문으로 사용할 때는 위로의 느낌이 있습니다. 엄청난 표현이 아닌 평범한 말이 더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밥은 먹었니?’는 참으로 평범한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힘들어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쳐서 넘어져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면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정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지요.

괜찮다는 말은 안심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에게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안심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일부러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도 자식에게는 아픈 위로의 말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걱정을 위로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 3.3. 토닥임

말로 하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다’는 말은 말로 위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말을 건네는 것보다 가만히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이 더 귀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감정이 온도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신체 언어도 우리말입니다. 우리의 귀한 언어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진실한 위로는 없겠지요. 동병상련의 장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말에는 문상에 대한 표현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아마도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아니면 조용히 안고 어깨를 토닥여 주겠지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는 역설적인 우리말 문상 표현입니다. 말보다 몸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털썩 주저앉아 함께 우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